



한국소비자원

소비에 가치를! 시장에 신뢰를!

# 보 도 자 료

다시 태어난다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5. 5. 19.(월) 12:00<br><5. 20.(화) 조간> | 배포일 | 2025. 5. 19.(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위해정보국<br>위해예방팀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김소영 팀 장(043-880-5421)<br>성시현 조사관(043-880-5425) |
| 담당 부서 | 공정거래위원회<br>소비자안전교육과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김민지 과 장(044-200-4418)<br>권일수 사무관(044-200-4422) |

## 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에 주의하세요!

- '머리 및 얼굴' 부상이 96.8%이며,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-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)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
### □ 아기띠 추락사고, 3명 중 1명은 '뇌진탕' 또는 '두개골 골절'

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\*이며,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'12개월 미만'이 83.9%(52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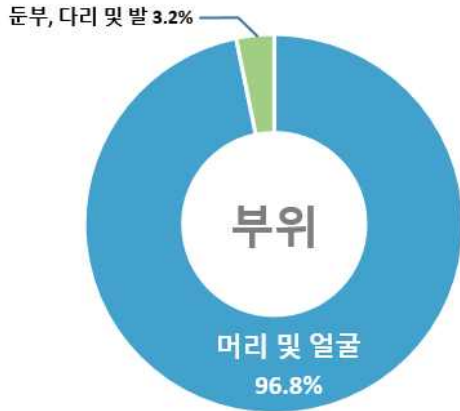
\* 위해 접수건(62건) : ('20년) 4건, ('21년) 7건, ('22년) 15건, ('23년) 20건, ('24년) 16건

※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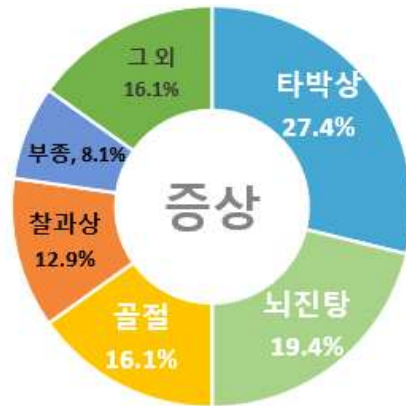
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'머리 및 얼굴'이 96.8%(60건)로 가장 많았고, '둔부, 다리 및 발'(3.2%, 2건)이 그 뒤를 이었는데,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특히,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'뇌진탕'(12건 19.4%)이나 '두개골 골절'(8건, 12.9%)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부위 ]



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증상 ]



\* 골절: 머리 8건(12.9%), 다리 2건(3.2%)

## □ 아기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틈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 다수

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,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(20건)가 가장 많았고,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(13건)가 그 뒤를 이었다.

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,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
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(7건)하거나,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(1건)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.

### 주요 위해사례

- ❶ 외출 중 아기띠가 갑자기 풀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발생
- ❷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추락하면서 신발장 문턱에 부딪혀 머리 타박상 발생
- ❸ 아기띠 후크가 끊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입술 열상 발생
- ❹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를 놓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발생
- ❺ 보호자가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숙이다가 영유아가 추락해 이마 열상 발생

□ 보호자는 올바른 아기띠 착용법을 숙지하고, 이동 중 주기적으로 점검해야

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,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

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▲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, ▲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, ▲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. 또한 ▲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,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, ▲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, ▲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.

- <붙임> 1.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 
2. 아기띠 추락사고 주의사항



□ (연도별) 최근 5년간 62건의 추락사고 발생

-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아기띠 추락사고 건수는 총 62건으로,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
[ 아기띠 추락사고 발생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합계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건수  | 4     | 7     | 15    | 20    | 16    | 62 |
| 증감률 | —     | 75.0  | 114.3 | 33.3  | △20.0 | —  |

□ (연령별) '12개월 미만'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,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

- 아기띠 추락사고 62건을 살펴보면 '12개월 미만(영아기)'이 83.9%(52건)로 가장 많았고, '1세(걸음마기)' 16.1%(10건) 순이었음.
- 아기띠는 주로 '0~1세'에서 사용되는데, 특히 '12개월 미만'의 경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[ 아기띠 추락사고 연령별 현황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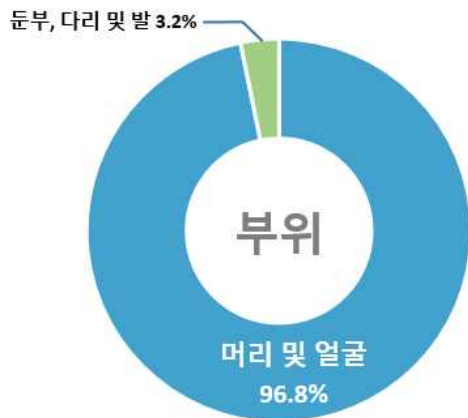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, %)

| 구분     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합계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12개월 미만 | 4     | 5     | 12    | 18    | 13    | 52 (83.9)  |
| 1세      | -     | 2     | 3     | 2     | 3     | 10 (16.1)  |
| 합계      | 4     | 7     | 15    | 20    | 16    | 62 (100.0) |

□ (위해부위별) '머리 및 얼굴'이 96.8%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

- 아기때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로는 '머리 및 얼굴'이 96.8%(60건)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'둔부, 다리 및 발' 3.2%(2건) 순이었음.
- 이는 영유아는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'머리 및 얼굴'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분석됨.

[ 아기때 추락사고 위해부위 현황 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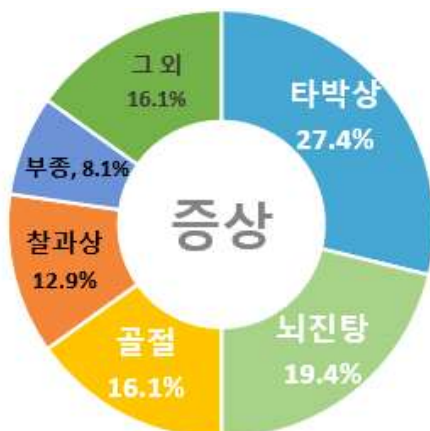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, %)

| 구분         | 건수 | 비율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|
| 머리 및 얼굴    | 60 | 96.8  |
| 둔부, 다리 및 발 | 2  | 3.2   |
| 합계         | 62 | 100.0 |

□ (위해증상별)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발생해

- 주요 증상별로는 '타박상'의 비중이 27.4%(17건)로 가장 높았으며, '뇌진탕' 19.4%(12건), '골절' 16.1%(10건), '찰과상' 12.9%(8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특히,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(19.4%)을 입거나, 두개골 골절(12.9%)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[ 아기때 추락사고 위해증상 현황 ]

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    | 건수 | 비율    |
|--------|----|-------|
| 타박상    | 17 | 27.4  |
| 뇌진탕    | 12 | 19.4  |
| 골절     | 10 | 16.1  |
| 두개골 골절 | 8  | 12.9  |
| 다리 골절  | 2  | 3.2   |
| 찰과상    | 8  | 12.9  |
| 부종     | 5  | 8.1   |
| 그 외    | 10 | 16.1  |
| 합계     | 62 | 100.0 |

**1. 아기띠 추락사고 관련 주의사항****[ 아기띠 추락사고 관련 주의사항 ]****□ 구입 시**

1.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KC인증 아기띠를 구입하세요.

**□ 착용[착탈] 시**

1.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하세요.
2. 착용 도중 영유아가 움직이면서 추락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영유아를 고정한 채 착용해주세요.
3.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하세요.

**□ 착용 중**

1.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세요.
2.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해주세요.
3.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버클이 느슨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.
4.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.

## 2.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

- (잘못된 장착) 아기띠를 느슨하게 장착하거나, 틈새 공간이 큰 경우

[ 올바른 장착 ]



[ 느슨한 장착 ]



- (착용 상태 변경)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아기띠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

[ 겹옷을 입은 경우 ]



[ 겹옷을 벗은 경우 ]



- (보호자의 부주의) 보호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, 탈착 시 방심할 경우

[ 갑자기 허리를 숙일 경우 ]



[ 탈착 시 영유아가 움직일 경우 ]



\* 참고 : 일본 국민생활센터(NCAC) 아기띠 영·유아 낙상사고 및 상해 주의('25.3.15.)